

# VD special

- 테마 오프닝
- 벤처 재도약의 동력,
- 기업가 정신

## 벤처인여 혁신하라, 도전하라, 창조하라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는 우리나라를 기업가정신이 가장 왕성한 나라라고 칭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의 목전에서 겪은 외환위기, 내수침체, 청년실업난 등으로 10여 년 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지금, 그 말이 참 무색하게 다가온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다시 벤처가 나섰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벤처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여야 할 때이다. 기업가정신은 돈을 벌기 위한 정신이 아니다. 주위 사람과 공동체를 중시 여겨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결단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는 도전이며, 탄탄대로를 거부하고 비바람 부는 날 풀이 무성한 인적 드문 길을 선택하는 모험이다. '자본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조건을 탓하거나 주저하지 말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며 백의종군하여 병사도, 배도, 무기도, 군량미도 없이 홀몸으로 대항대와 맞서 찬란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을 되새겨보라. 우리 벤처인에겐 아직 혁신과 도전과 모험정신이라는 기업가정신이 있지 않은가. 하늘에 온통 구름이 끼어있고 천둥번개가 내리쳐도 여전히 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우리 벤처인이 기업가정신을 놓지않고 이상을 위해 도전한다면, 곧 구름 뒤 태양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대 벤처인을 향해 찬란히 빛날 것이다. 벤처인이여! 벤처 재도약의 동력이 될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고, 두 발로 땅을 박차고 일어나 구름 위 이상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자.

## ◎ 기업가, 혁신과 성취욕으로 가는 외길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 자신의 책임 하에 자원을 조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바로 기업가다. 사업을 시작하면, 기업가는 필연적으로 사업에 동반되는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만 한다. 사업이 실패라도 한다면 자신은 물론 믿고 도와준 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실패한 자'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하지만 기업가는 자기 기술에 대한 믿음과 성취욕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도전한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한 1세대 기업인들이 그랬고, 혈기왕성한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또한 그랬다. 이렇듯 기업가들은 뒤를 보며 후회하기보다는 앞을 보며 미래를 꿈꾸는 자다.

## ◎ 벤처기업, 쓰러질지언정 멈출 줄 모르는 도전정신

지식사회 진입 후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를 모두 감당할 기업은 없다. 누군가 변화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주어야만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탄생한 기업군이 바로 벤처다.

전문성, 기술력, 창의력을 겸비한 혁신의 요체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끊임없이 전파하지만 벤처기업의 생리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하루에도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사라져갔다. 그러나 사라질 뿐 쓰러지지는 않는다. 아이디어와 기동력으로 끊임없이 변신하고, 특유의 벤처정신으로 수많은 위험과 맞선다.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신기술을 무기로 대기업과, 세계와 당당히 경쟁한다. 국가경제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키는 벤처는 국가경제의 활력소다.

## ◎ 기업가정신, 도전과 실패로 쌓아 올린 혁신의 탑

지난 30년 간 우리는 국민소득 258배 증가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경제 황무지에서도 도전을 겁내지 않은 혁신적 기업가정신이 있었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탄생한 벤처기업은 IMF조기졸업의 주역이었고, 정보화시대를 앞당긴 견인차였다. 그 외중에 많은 벤처기업이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벤처는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벤처정신의 또 다른 이름은 기업가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고스란히 공공자산화하는 사회시스템, 내부로부터 시작된 자성과 혁신을 통해 기술과 제품으로 승부하는 기업가 본연의 자세. 그런 토양 위에서 틈을 내는 나눔의 기업문화, 벤처기업인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은 기업가정신의 불씨를 다시 지피길 기대해 본다.